

시음 주보

제24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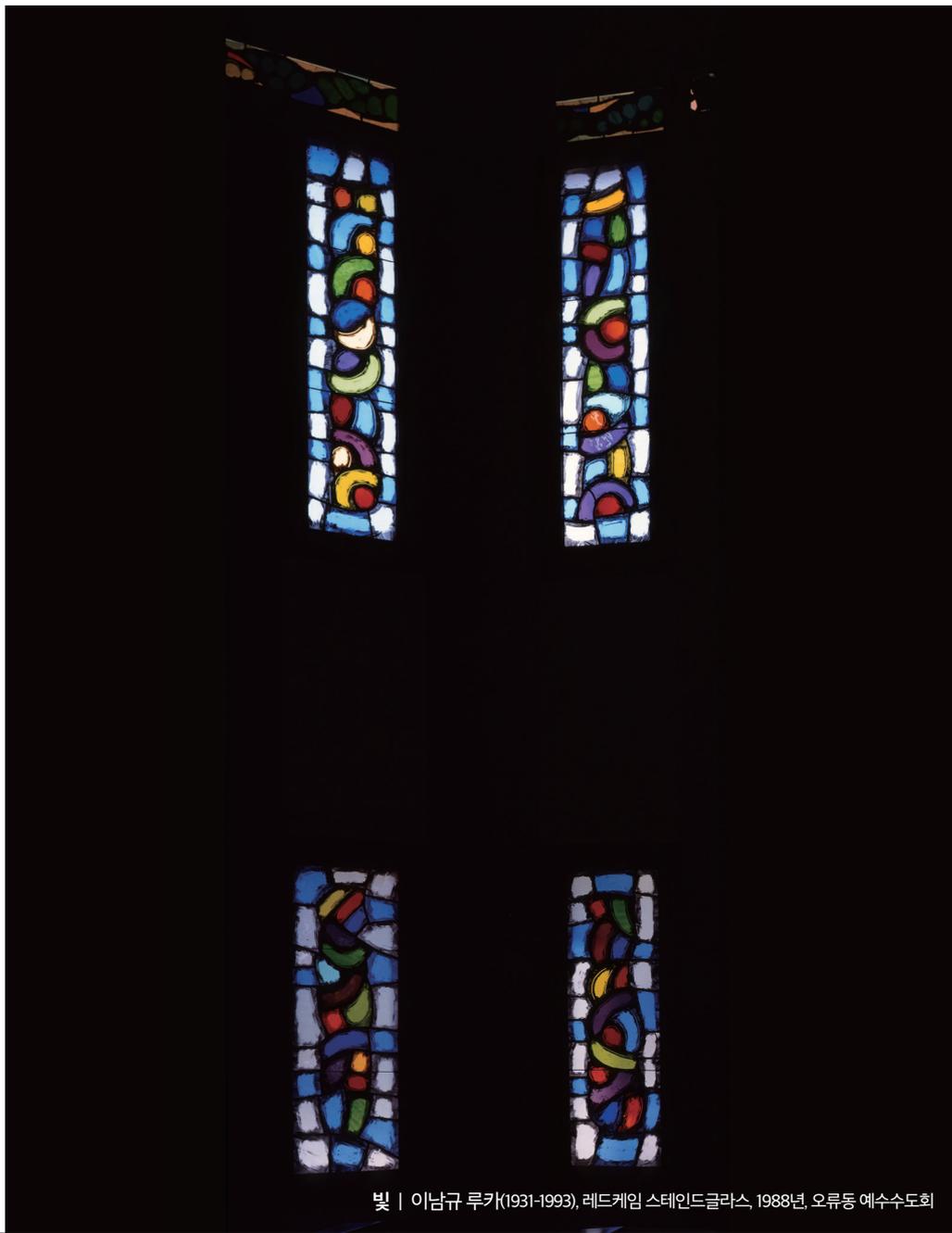
2023년 2월 19일(가해)

연중 제7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페이지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빛 | 이남규 루카(1931-1993),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8년, 오류동 예수수도회

입당송 |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
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제1독서 | 레위 19,1-2.17-18

화답송 |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
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
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

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
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 1코린 3,16-23

복음환호송 | 1요한 2,5 참조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
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복 음 | 마태 5,38-48

영성체송 |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날날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허석훈 루카 신부 | 한강성당 주임

| ‘좋아요’라는 족쇄를 벗고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모두가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여전히 ‘인정 욕구’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더불어 인터넷이 만드는 가상의 공간에서 ‘좋아요’를 받아내기 위해 애쓰는 청춘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세태를 좀 더 가깝게 인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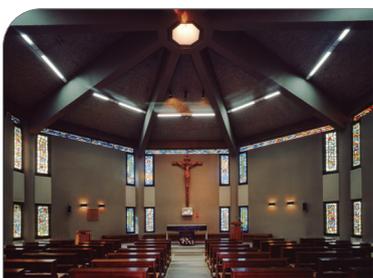
무엇에 목마른 사람들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스미는 욕망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일 테지만, 그런 깊은 사랑은 할 자신도 없고, 받을 자신도 없어 그저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기를 탐하며, 인터넷 세상의 ‘좋아요’를 갈구하는 모습이 가끔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톱질 시류에 포장된 자기 모습으로 ‘좋아요’를 위해 온 마음 다해 노력하지만, 남는 것은 ‘허전함’임을 경험하기에 인터넷 세상은 날로 그렇게 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걸친 옷을 사고, 남들이 먹은 곳을 찾아가 순례하고, 남들이 놀러 간 장소를 되밟아야, 뒤처진 느낌 없이 살 수 있는 욕망의 굴레를 짊어진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손해 보는 기쁨’을, 아니 하느님께 ‘좋아요’를 받을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고,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겹옷까지 내주라고,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이천 걸음을 가 주라고, 달라면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 가르치시다, 이제 아예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너’ 자신으로 살아보는 기쁨을 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군가를 흉내 낼 양이면 하느님을 닮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놀이 말고, 진짜 자신을 버려 헌신하는 사랑을 해보라 가르치십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아가며, 허울로 덧씌워진 ‘나’를 잊고 ‘진짜 나’를 만나보라 가르치십니다. 다시금 목마른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의 굴레를 벗어 ‘헌신적 사랑으로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완전함’을 가르치십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느님의 사랑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무던한 사랑 덕에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웃으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늘 완전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양,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는 것은, 고작해야 남의 욕망을 살아내는 어리석음임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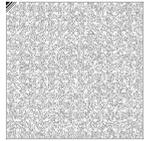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통해서 보이는 바깥 풍경은 늘 보아왔던 것과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무심히 지나갔던 자연의 변화를 문득 깨닫게 해 줍니다. 무감각했던 내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삶의 고통과 부당함에 맞서 성숙하고 완성된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변화하는 용기를 내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박정석 마카엘 | 루크글라스

작품
설명



이영준 로렌조
KBS 시사교양국 프로듀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회장

참회록 그리고 감사를 일깨워준 과분한 직분

고백합니다.

공영방송의 제작자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방송인의 책무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그에 걸맞는 고품격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업방송의 백가쟁명 속에서 좌우 이념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현안은 물론 해결해야 할 주요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는 데 앞장서며,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등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람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저’를 늘 우선시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제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님께 늘 겸손함을 청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 지난해 크나큰 십자가이자 제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초대 회장이라는 과분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동안 신문, 출판, 방송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가톨릭 언론인 신자 모임이 하나로 통합되며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가 2022년에 발족되었고, 한없이 부족한 제가 과분한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가톨릭 교우회 활동을 좀 하고, 성가대 단장을 맡고 있던 것이 전부였던 제가 이제는 현업에 소홀함이 없이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들을 쪼개고 바쳐야 했습니다. 소소하게 챙겨야 할 일들, 새롭게 기획하는 일들, 처음으로 하는 국제 행사, 직분을 맡으며 처음으로 체험한 꾸르실료까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정신없이 나누고 보태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많이 버겁고 힘들어 자책과 불평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은 감사와 은총으로 바뀌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직을 맡겨주신 분들께 송구함을 감출 수 없지만, 그래도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감사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새해 워크숍도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었고, 구상 중인 공영방송의 본령을 다하는 프로젝트 2개, ‘엠제트(MZ) 세대’ 용기 불어넣기 기획과 ‘재미있는 역사 탐방’ 기획안도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리고 있습니다. 팔순 어머니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최근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별다른 고통 없이 잘 쾌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체중 감소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던 장모님도 회복되시어 밝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전에 어딘가에서 인상 깊게 본 경구를 함께 나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할 필요는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한것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전례'

“(1870년) 구원의 역사 곧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신앙은 우리 가운데에 특히 전례 거행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또 작용한다.”
- 전례현장 35항 -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전능하신 천주성부를 믿나이다”(2)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에 성경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의미를 보았습시다만, 여전히 ‘슈퍼맨’ 같은 하느님의 이미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도신경의 라틴어 본래 문장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이 문장을 단어 순서대로 이해하면 ‘나는 믿나이다 하느님을 아버지를 전능하신’입니다. 정리하면 “나는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나이다.”가 되겠지요? 보시다시피 전능하신(omnipotentem)이 수식하는 단어는 하느님(Deum)이라기보다는 아버지(Patrem)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의 의미는 ‘아버지’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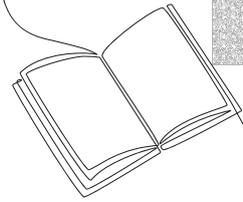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고통 속에서 외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이해되는 것이지요. 이런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묘사하십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마태 5.43-48)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에게나 선인

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완전함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안에서,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요 만군의 주님이며 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안에서 드러난 사랑,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는 그 사랑, 여기에 하느님의 완전함, 하느님의 전능함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신앙고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2월 12일 자 신학 4회차 원고 참조)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고백은 뒤에 나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이해하는 고백일 때 그 참되고 귀한 의미를 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전능하신’은 더 이상 ‘힘’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에 있어서 전능함’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실 수 있는 하느님, 당신 아들을 내 주실 수 있는 하느님, 십자가의 무능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느님의 전능함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것만이 가장 작은 것’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초대교회 몇몇 문제들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신약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면서도, 초대교회가 처한 문제나 제기한 질문,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할만한 문제를 꼽는다면, 재림 지연에 대한 문제, 유다교와 결별하면서 제기된 신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첫째, 재림 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도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점차 재림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2테살 2,2)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부활 후 발현하신 예수님과 사도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재림의 시기가 아닌, 교회 존재의 의미를 밝혀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는 재림의 시기를 알아맞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사명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둘째, 신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부활의 기대, 종말에 관한 생각 등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종교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교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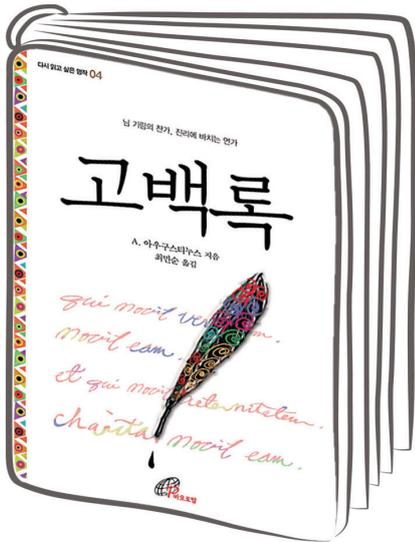
들에게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은 결국 유다교의 박해를 촉발하게 되었고, 스테파노의 순교(사도 7,60)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대두되던 문제가 구세사의 계승 문제입니다. 옛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 역사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구약성경을 부정했던 ‘마르키온’이라는 이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루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형성되었고(사도 1,12), 줄곧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유다교적 신앙을 버리지 않고 회당과 성전에서 유다교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며 유다교를 완성하는

것이라 제시합니다. 또한 저자는 나자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구원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고통 없이 평화롭게 탄생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문제와 역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고뇌하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시련은 신앙을 꺾어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뇌하던 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교회로 성장했듯, 시련과 고심의 시기는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대교회는
고통 없이 평화롭게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와 역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고뇌하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



도서 '고백록'

집요한 엄마와 성인의 엄마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집요한 엄마를 통해서도 하느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새삼스레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354-430)의 어머니 성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고백록』을 읽기 전까지 저는 성녀를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에 가리어 ‘집요한 엄마’의 측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출세를 바랐고 그래서 공부나 결혼 등 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고향 북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로 갈 때에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출세하기 위해 큰 세상으로 가는 야심 찬 청년도 보이지만, 엄마에게서 벗어나려는 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16살 아우구스티노의 눈에 비친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기억은 예리합니다.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희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보다 “출세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집요한 엄마 모니카의 절정은 30대

초반 아우구스티노의 결혼을 주선하는 장면! 당시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였던 그에게는 이미 카르타고에서 유학 중이던 18세부터 동거해 온 여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아들 아데오다투스(372?-389)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의 출세를 위해 유망한 집안과 결혼을 주선했고 그는 “떨어져 나간 심장에서 피를 흘리듯”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십몇 년 동거했던 여인을 떠나보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고백록』 후반에서 인간 모니카에 대해 더 알려줍니다. 그녀는 어려서 술에 빠지기도 했지만 마음을 잡고 거기서 빠져 나올 만큼 절제력이 있었고, 걱정적인 남편을 지혜롭게 대할 줄 알았으며, 주변 사람들의 중재자였고, 유머감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브라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저서에서 아우구스티노가 주교로서 지냈던 많은 성품을 어머니에게서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주교로서 북아프리카에서 마니교, 도나투스파, 펠라지우스파, ‘선진’ 로마

의 세속적 문명 등 교회를 위협하는 당대 사조와 지치지 않고 싸우며 사목을 펼칩니다. 그런 에너지는 신앙의 산물인 동시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단호함을 자기 삶에서 잘 통합시킨 산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 그는 회심 후 모니카에 대해서 감탄을 했고, 신비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고백록』은 주교가 된 아우구스티노가 40대 중반에 쓴 자서전입니다. 거기에는 쉽지 않은 사상적 이야기도 많지만 가족과 친구들 이야기도 곳곳에 나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새로 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이 기대하는 ‘리셋’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노의 경우처럼 아픈 과거, 가족 배경,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빛 안에서 인생과 화해하고 통합됩니다. 하느님은 집요한 엄마와 방황하는 아들을 통해서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은총은 자연을 부정하지도 ‘리셋’하지도 않고 그것에 기반하여 삶을 완성합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주님의 기도' 때 손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때 이와 같은 손동작을 취하는 전통은 이미 구약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손을 들어 올리고 팔을 벌립니다.”라고 설명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증언도 생생합니다. (경향잡지, 2011년 8월 호, 장신호 주교님 글 참조) 이 같은 흐름은 오늘 주신 질문의 주제인 미사 중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도 이어집니다. ‘미사전례총지침’은 사제나 공동 집전자가 주님의 기도 중 팔을 벌려 기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73항)

팔을 벌리는 것은 하느님께 간절히 외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은 두 팔을 벌림으로써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고, 하느님을 향해 몸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나아가 활짝 펼친 두 팔은 마치 날개의 모습이 되어,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타고 하느님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도록 희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팔을 벌린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펼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전례의 정신〉 224-225쪽 참조)

그렇다면 사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동안, 교우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초대교회 때에는 사제뿐만 아니라 교우들도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벌리는 자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이를 지금도 신자들이 전례 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대와 감실의 싸움〉 ‘미사 때 이루어지는 동작의 의미’ 참조) 다만, 현재 ‘미사전례총지침’



이 주님의 기도 중 팔을 벌려 기도하도록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대상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입니다. 교우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 관례적으로 많은 본당에서 ‘주님의 기도’ 중 기도손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본당 사목자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주님의 기도’ 중 교우들끼리 손을 잡도록 안내하는 미사에 참례해본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위해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라는 점 (가톨릭교회교리서 2768항 참조)을 반영한 전례적 실천일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에 발표된 주교회의의 지침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례적으로 주님의 기도 때에 손을 잡는 것이 권장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서적인 문제나 위생적인 문제로 손을 잡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일선 사목자들이 친교를 이유로 미사 때마다 손을 잡기를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주교회의의 2015년 춘계 정기총회)

심리를 통하는 영성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십수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영성심리’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성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온 저에게도 “영성심리 공부하셨다면서요?” 하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요. 영성신학이랑 심리학 따로따로 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학문으로서 ‘영성심리’라는 표현은 한편으로 맞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족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심리학계에서 영성심리학은 아직 하나의 명확한 학문 분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월심리’ 또는 ‘메타영성’이라 하여 영성과 심리의 영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성격심리학’ 등 다른 계통의 심리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표현이 맞는 이유는 우리가 ‘영성’을 그 자체로 경험하지 않고 거의 언제나 심리 차원과 연결하여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여하신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런데 영을 통해 직접 소통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예라면 깊은 기도 중에 환시를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듣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하느님께서는 주로 인간의 상위 능력인 지성 작용(생각)이나 정서 작용(감정)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이 지성 작용이나 정서 작용은 결국 인간 심리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삶이기에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영성 따로 대인 관계 따로, 영성 따로 사목 활동 따로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성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음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매일 같이 경험하는 심리 과정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드러나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려면 심리 차원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골리 2,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기를 청하면서 되뇌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영성적 가르침이 우리가 갈 방향을 크게 제시해주는 것이라면, 심리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유용한 지도입니다. 목적지는 알지만 갈 길을 몰라 헤매기보다,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통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심리 차원을 돌보면서 갈 때 우리 영성 생활은 훨씬 튼튼해 집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잠언 4,23)

소식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2월 22일 이우철 시몬 신부(69세)
- 2020년 2월 25일 최현묵 마태오 신부(40세)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관리비 인상 안내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묘지·봉안시설 연간 관리비가 2023년 3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매장묘	영구묘지	1평 당 2만원/년
	기간제묘지	1평 당 2만5천원/년
봉안시설	봉안담, 봉안묘	1위 당 2만5천원/년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천주교묘지 현장관리사무소(1588-9769) 또는 장묘관리팀(02-727-222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청 알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讎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57차 미사 2월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사리원 분당, 정봉 분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讎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슬픔 속 희망찾기’ 사실유가족 자조모임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을 위한 지지집단
 프로그램: 독서모임, 그림그리기모임, 글쓰기 모임, 성경묵상모임, 명상 / 신청기한: 2월28일까지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3079.or.kr)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전화 접수(02-727-2495)
 총진행일정: 3월~12월까지(매월 1회, 총 10번 모임 예정)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목국 직장사목팀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연습·미사: 매주(금) 19시30분·돌짜주(금) 20시,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10-5760-6638 단장

2023 상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70명 선착순 마감

과목 1. 유아발달이해	3월15일, 3월22일, 3월29일, 4월5일 (수)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과목 2. 신앙전수법	4월19일, 4월26일, 5월3일, 5월10일 (수)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교육내용: 변화된 양육 태도, 놀이지원, 훈육방법, 칭찬 방법, 말씀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신앙 전수법 등
 회비: 과목당 5만원(두 과목 모두 신청 시 10% 할인)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140646 (계)천주교서울대교구
 신청기간: 2월28일(화)까지(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https://isenior.catholic.or.kr>)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 / 문의: 02)727-2385, 2386
 노인사목팀(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학생회(KYCS-Cell) 회원 모집

가톨릭학생회는 로마교황청 산하 국제가톨릭학생회(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에 가입되어, 활동과 나눔을 통해 또래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어우러지며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톨릭학생회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가톨릭 청소년회관(해화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모임 및 체험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kycs.or.kr/cell)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및 시복시성 미사

1)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일시	코스
3월11일(토) 오전 9시부터	1코스 말씀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3월21일(화) 오전 9시부터	1코스 말씀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2월2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이 달의 하느님의 종 ‘이기주 바오로’

때: 매일 셋째주(화) 2월21일 오전 10시(183화)
 곳: 절두산 순교성지
 집전: 원종현 신부(담양사제)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3년 사순 특강

때, 곳: 2월27일~3월27일(5주간)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 문의: 02)774-1784

2월27일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루카 15:6) 가정과 이웃의 생명 자립이 교육	차바우나 신부(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자살예방센터장)
3월6일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삶”	나충열 신부(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3월13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	현대일 신부(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3월20일	“천우경시 선생님의 꿈과 무료병원 요셉의 이야기”	홍근표 신부(요셉나눔재단법인 사무총장)
3월27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하성용 신부(사목국사목부국장·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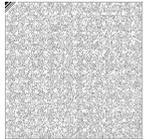
제42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온라인 교육

대상: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공부하고 활동할 신자, 수도자, 성직자 /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때: 3월14일~5월9일 매주(화) 19시30분~21시(총 9회)
 방법: 온라인(Zoom으로 진행), 강의, 나눔, 과제(녹화영상 강의 시청 등) / 3월2일(목)까지 접수 마감(선착순 80명)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서 링크 주소(<https://bit.ly/3Ha8yA6>)로 접속하여 제출 필수 / 회비: 1인당 5만 원

3월14일	1강 오리엔테이션, 「찬미받으소서」 서문	교구 환경사목위원회
3월21일	2강 1S 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익찬 교수
3월28일	3강 1S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과 4장 ‘통합생태론’	조현철 신부
4월4일	4강 1S 2장 ‘창조의 복음’	이다한 신부
4월11일	5강 1S 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박동호 신부
4월18일	6강 ‘공동의 집을 돌보는 행동’	하유경 디딤벗
4월25일	7강 1S 6장 ‘생태 교육과 영성’	문점숙 수녀
5월2일	8강 ‘생태문명으로서의 전환’	이재돈 신부
5월9일	9강 「찬미받으소서」 7번 여정에 따른 7가지 실행목표 및 현대 활동 소개, 수료미사	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곳: 3월7일부터 매주(화) 14시~15시30분(4주간),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캘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박은희 개인전: 1전시실
 안봉선 개인전: 2전시실
 임은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2월22일(수)~3월2일(목)

수도자 성체 분배 직무 교육

대상: 서울대교구 성체 분배 직무 규정에 따라 신규·갱신 교육이 필요한 교구 내 수도자
 때, 곳: 3월22일(수)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1만원(3월15일 마감)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신청서 송부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3년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

가톨릭스카우트 홍보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작성 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스카우트에 관심 있는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
 때: 2월23일(목) 19시, 2월24일(금) 10시30분, 2시25분(토) 14시 중(택1) / 2월20일(월)까지 접수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해화동)
 신청방법: <https://naver.me/GFes3RuP> 접수 후 신청문의(기타): 02)762-9857 / (화~토) 8시~17시

생명위원회

1) 충만한 삶을 향한 「사랑의 기쁨」 수업

대상: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때: 3월7일~4월25일 매주(화) 19시30분~21시(8주)
 곳: 서울대교구청 501호 / 회비 무료
 목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을 통해 신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랑, 혼인, 가정, 고통, 죽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속고 하며, 보다 충만한 삶을 위한 복음적 관점을 정립함
 신청마감: 3월3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신청): 02)727-2351, 3 생명위원회 사무국

2) 자연주기법(NFP) 강사 양성 워크숍

때: 3월4일~4월15일(3월4일·3월18일·4월1일·4월15일) 격주(토) 14시~17시(4주간)
 곳: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대상: 자연주기법을 배우고 강사로 활동하실 분(45세 미만인 여성) / 회비: 개인 5만원(교재 포함)
 마감: 2월24일(금) 오후 5시
 문의(신청): 02)727-2350, 1 생명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불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2월1일(수)~24일(금) / 3개월 수업(3월~5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불학기	실기전문 과정	
	양상블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깨생활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지리산 피아골 피정
 때: 3월9일~10일, 5월19일~20일, 6월23일~24일, 7월21일~22일 / 문의: 010-3712-8119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도쿄, 북해도, 가고시마, 나가사키
 회비: 75만원 / 문의: 010-3645-9028 송진욱 신부

성체헌시와 성모송 천변 기도회
 때: 2월20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월24일(금)~27일(월)·3월10일(금)~13일(월)·4월7일(금)~10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순례와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2월26일~28일·3월4일~6일·3월9일~11일·3월13일~15일·3월18일~20일·3월24일~26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3월6일~8일, 3월18일~20일
성지순례	3월12일~15일, 3월25일~28일, 4월15일~18일, 4월29일~5월2일, 5월6일~9일

우이동 명상의 집 3월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3월3일(금)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대침묵 피정	3월10일~12일(2박3일)		
사순피정	3월7일·14일·21일·28일 매주(화)		

교육

학력인정 어른 초등학교·중학생·검정고시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곳: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가톨릭회관 5층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다네이 글방(예수고난회)

하느님을 향한 책읽기와 글쓰기 / 대면·비대면
 때: 매월 둘째·넷째주 (화) 오후, (수) 오전
 곳: 수도원(돈암동) / 문의: 010-9503-1127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때: 3월9일~23일 매주(목) 13시30분~16시30분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CaFF영화제작워크숍 11기 수강생 모집

때: 3월8일~6월17일 매주(수) 19시~21시3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미국 가톨릭보딩스쿨연합(CBSA) 학교 설명회

때: 3월4일(토) 오후 3시(예약 필수)
 대상: 초5~고2 / 약 10개 학교 참여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학교법인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헬라어)

때, 곳: 4월부터 1년간(주1회 2시간), Zoom
 회비: 3개월 30만원 /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구역	(목) 10시·19시30분	신약	(수) 19시30분
----	----------------	----	------------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2월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새사제 미사

주례: 새사제 / 문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때, 곳: 2월25일(토) 오전 11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2월20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2월27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2월2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3호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문의: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010-5818-8431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다섯째주(일) 2월26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안내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피정

수도자, 청소년, 예비자, 성인 피정
 문의(접수): 032)465-0835(www.brotherhood.or.kr)
 침묵 대월 기도 피정: 3월1일~5일·4월6일~9일

명동성당1898광장 병의원·약국 임차인 모집

대상: 근생(병의원·약국) 업종으로 직접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 / 접수: 3월17일까지(추후 심사 예정)
 문의: 02)727-2306 가톨릭회관 관리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대면강의 및 그룹훈련: 3월9일~6월15일 매주(목) 14주, 치료적 강의 10시~11시30분·그룹훈련 11시30분~13시 / 회비: 학기별 45만원
	온라인 동영상 녹화강의 / 회비: 학기별 30만원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2월28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골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한누리아동센터(독립문역) 사회복지사 모집

분야: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정규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 02)735-3633
 채용시까지 이메일(hannuricenter@hanmail.net) 접수

성 앙베르 센터(진관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주말 근무 가능한 분(주 40시간 근무) / 업무: 회계 및 피정 준비 등
 분야: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3월5일(일)까지 이메일(imbet@seoul.catholi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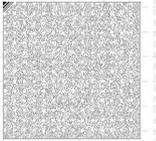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10-6221-3520 유명일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2월26일(일) 9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성경 교육 수강 안내 (2)

서울대교구 공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가톨릭 성서모임,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바오로 성서모임, 베네딕도 성서 학교, 바오로딸 성경학교, 성서못자리, 성서백주간, 여정성서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2주에 걸쳐 안내드립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가톨릭성서모임

■ 교육 과목

- ① 성서사십주간: 1년 과정 성경 통독, 매주 1회 안내 강의
- ② 성경그룹공부: 성경 과목별 그룹 공부, 6-10개월
- ③ 축복받은 성경읽기: 과목별 읽기, 과목당 2-3개월, 그룹별 읽기
- ④ 마지막에서 두 번째 명상 (축복받은 노년 성경읽기)

■ 수강 안내: 전 과정은 분당별, 센터별로 개설됩니다.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전 과정은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흑석동 센터: 02)824-4363
- 정릉 센터: 02)2171-1672
- biblemove.com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 여러분이 교회'라는 표어 아래 그룹봉사자, 연수 봉사자, 센터 봉사자로 구성되어 성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이 있으며 그룹공부를 마치면 해당 연수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수강 안내

직장인 창세기	직장인 탈출기	요한 연수	
3월25일~26일, 29일, 4월1일~2일	4월15일~16일, 19일, 4월22일~23일	5월2일~5일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사도행전
7월6일~9일	7월13일~16일	7월20일~23일	7월27일~30일
8월3일~6일	.	.	.
대표 연수	그룹봉사자 교육	그룹봉사자피정	연수봉사자피정
대학 2월18일~19일 본당 6월10일	3월11일	5월13일~14일	6월17일~18일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못자리

■ 그리스도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공부하는 성경 프로그램

■ 교육 과정

- ① 정기 강좌: 신부님 강의와 나눔으로 이루어진 3년 과정의 강좌
- ② 나눔터 과정: 본당 못자리 봉사자들과 나눔을 동반한 성경 공부.
- ③ 온라인 과정: 동영상 강좌로 구성된 에드워드 과정.

■ 일정 및 참여 방법(2023년 상반기)

- ① 모집: 2월 1일~28일(인터넷 접수), 3월 6일~20일(현장 접수)
- ② 인터넷 접수: <http://samok.or.kr/bibleseedbed>(수강료 납부는 온라인으로)
- ③ 문의: 02)727-2379 성서못자리 사무실

	학기(주 1회 수업)	수업시간	수강료
명동 정기강좌(명동)	3월6일~6월19일	오전 10:30	8만원
나눔터 학교(졸업생과 봉사자만)	매주(월) 15주간	(1시간 30분)	7만원
직장인 반 정기강좌(명동)	3월8일~6월14일	오후 7:30	8만원
청년 성서못자리(명동)	매주(수) 15주간	(1시간 30분)	5만원
미주 온라인 성서못자리 (온라인 수업)	3월7일~6월13일 매주(화·목) 15주간	동부: 화(오후 7시) 서부: 목(오후 8시)	8만원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1년 과정)	3월7일~6월30일	동영상 강의 이수 (학기당 20회)	10만원

서울대교구 성서백주간

■ **목적:**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하느님 말씀을 영적 양식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 **방법:** 성경 전부를 121주간(약 3년)에 걸쳐 통독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10명 내외)을 이루어 각자 집에서 배분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10~15장 정도, 도움책 활용) 매주 1회 주간 모임(1시간~1시간 30분)을 합니다. 이 모임에서 복습과 묵상나눔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생활화 합니다.

① 읽기 배분표에 따라 성경 읽기

② **주간모임 순서:** 시작기도 · 복습 · 묵상 나눔 · 휴식 · 예수 · 마침기도

■ **주 교재:** 성경, 도움책

■ 문의

- 성서백주간 본부(cafe.daum.net/bible100weeks)
- 전화번호: 010-357-4410, 02-730-4410
- 각 성서백주간 본당 대표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평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김) 신부
부 주 임 진솔기(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21	봉헌 : 210, 217, 512	성체 : 179, 162, 503	파견 : 77
-------	---------	--------------------	--------------------	---------

《 환영미사 및 약력 》

2월 19일(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새로 부임하신 전두병 (요아킴) 수석부주임 신부님과 진솔기 (토마스 아퀴나스) 부주임 신부님, 이철규 (아우구스티노) 보좌 신부님의 환영미사로 봉헌됩니다. 따뜻한 환영과 함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약 력

※ 전두병 (요아킴) 수석부주임 신부 ※

- 2007. 7. 6. 사제 서품
- 2007. 8. 24. 새 사제 학교
- 2007. 11. 20. 가좌동 성당 보좌
- 2009. 12. 1. 당산동 성당 보좌
- 2011. 8. 30. 해외유학
- 2016. 2. 16.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경) 서울대학교구법원 재판관
- 2019. 2. 12. 서초동 성당 부주임
- 2021. 2. 16. 성북동 성당 부주임

※ 진솔기 (토마스 아퀴나스) 부주임 신부 ※

- 2011. 2. 8. 사제 서품
- 2011. 2. 22. 옥수동 성당 보좌
- 2012. 8. 28. 해외유학
- 2021. 2. 16. 수유동 성당 부주임

※ 이철규 (아우구스티노) 보좌 신부 ※

- 2020. 2. 7. 사제 서품
- 2020. 2. 18. 연희동 성당 보좌

《 재의 수요일 》

2월 22일(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속죄와 보속의 사순 시기가 시작되며, 당일 모든 미사 중 이마에 재를 얹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 십자가의 길 : 2월 24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예비신자석 별도 마련 안내

오늘부터 주일 낮 12시 교중미사와 주일 오후 6시 미사에 예비신자석이 다시 마련됩니다. 교리를 마치고 예비신자들이 함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분기(2월) 새 신자를 위한 후속교육 명동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는 세례 받은 신자들을 위해 분기별로 4주간의 후속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2월) 후속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 되오니 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일정		교육주제
1주차	2월21일 (화)	하느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 전례 -
2주차	2월28일 (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 성경과 기도 -
3주차	3월 7일 (화)	성사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 성사 -
4주차	3월14일 (화)	참회예절과 고해성사

- 시간/장소 : 오후 7시 30분~9시 / 교구청본관 401호
- 교육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세례 받은 신자
- 신청방법 : 1주차 교육일에 강의 장소에서 현장 접수 (※사전 신청 불가 & 추가 접수 없음!)

◎ 2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165,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2/6-2/12).....20,404,700
 - 연중 제 6 주일 헌금.....28,758,000
 - 튀르키예 · 시리아를 위한 2차 헌금...24,551,000
 - 감사헌금 (2/6-2/12).....1,331,000
- 김 안젤라 / 백 안젤로 / 예 유스티나
예 이레나 / 유 마리아 / 이 안젤라메리치
임 사무엘 / 전 요셉 / 최 안나 / 한 헬레나
홍 마리아 / 홍 요한 /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유이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늘푸른청년미사)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월	오전 7시, 오후 6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영 어	주일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 · 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토	오전 7시			토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금	주일	토	오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